

# 스포츠

8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 조선체육회 회칙 찾았다

대한체육회 100년사 자료 검토 중  
창립취지서 문장 등 새롭게 발견

**스포츠 733**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4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조선체육회 창립취지서와 회칙을 새로이 발굴했다. 이번에 찾아낸 자료는 1925년 2월에 발간된 조선체육회 제3호에 실린 내용으로, 기존에 알려진 1934년 3월호 신동아에 실린 취지서보다 9년이나 앞선 것이다. 이 취지서는 (재)아단문고에서 소장 중이던 자료로, 대한체육회 100년사 편찬팀에서 역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발견했다. 종전에 알려진 창립취지서는 서문부 1단락이 3개 문장이었으나 1925년 창립취지서 자료는 4개 문장으로 아래의 한 문장이 더 존재한다.

“보라 蒼空(창공)에 빛나는 붉은 해와 虛空(허공)에 도는 크고 넓은 땅을/그 얼마나 壯烈(장렬)하며 健々(건건)한고?/天地(천지)에 흐르는 生命(생명)은 果然雄壯(과연웅장)하도다.”

또한 조선체육회 회칙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100년사 편찬팀이 1924년 7월 회장제에서 위원장제로 바뀐 회칙 등 서로 다른 2건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 밖에도 100년사 편찬팀은 창립발기인 명단 등 현재 기록과 다른 점도 발견했다. 2020년 10월에 발간될 100년사에서 바로잡을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2020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체육회 100년, 국민과 함께 할 백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100년사 발간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 코리아솜비 제자 홍준영 아지즈백과 화끈한 한판

5일 개최 ‘더블G FC 03’ 메인이벤트

**DOUBLE G** 국내 종합격투기계에 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더블G FC’가 세 번째 대회 개막을 눈앞에 뒀다.

더블G FC는 5일 양재동 더 K 호텔에서 ‘더블G FC 03’ 대회를 개최한다. ‘코리아솜비’ 정찬성의 제자 홍준영(29·코리아솜비 MMA)이 메인이벤트를 맡았고, TFC 밴텀급 챔피언인 황영진(32·SHIN MMA)도 1년여 만에 복귀전을 치른다. 이외에도 국내외 격투기단체에서 걸출한 성적을 남긴 선수들이 함께 메인 6경기를 장식한다.

마지막 메인이벤트에서는 홍준영이 아지즈백 오소르백(23·키르기스스탄)을 상대한다. 아지즈는 프로 전적 22전 15승7패를 기록 중인데, 최근 5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흐름이 좋다. 홍준영으로서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정찬성이 홍준영의 세컨드로 함께 해 힘을 더할 예정이다. 모든 경기가 타이틀매치나 다름없는 이번 더블G FC 03 대회는 아프리카TV와 IB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K리그1 하위스플릿 추락한 수원, 마지막 자존심 지킬까



# 이제는 ‘FA컵 우승’ 뿐 화성과 4강 2차전 올인



수원 삼성은 더 이상 상대에게 위협을 주는 팀이 아니다. K리그1에서는 상위 스플릿에 들지 못했다. 이임생 감독의 고심은 깊어지만 간다. 수원에겐 남은 자존심은 FA컵뿐이다. 수원은 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화성FC와의 FA컵 4강 2차전에 나선다. 1차전을 0-1로 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2골차 이상 승리가 필요하다. 작은 사진은 1차전에서 패한 뒤 고개 숙인 수원 선수들의 모습.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 오늘 2골차 이상 승리해야 결승행 수준전 변수...선수단 배수진 각오

수원 삼성이 위기다. 한 때 K리그를 호령하던 서슬 퍼런 기세는 온 데 간 데 없다. 명문구단의 자부심도 희미해졌다. 더 이상 상대가 두려워하는 압도적인 존재가 아니다.

수원은 올 시즌 K리그에서 실패했다. 32라운드까지 승점 40을 마크하며 상위 그룹(1~6위)에 들지 못했다. 파이널라운드(스플릿라운드)까지 단 한경기만 남겨둔 가운데 6위 포항 스틸러스(45점)에 5점을 뒤져 하위그룹(7~12위)이 확정됐다. 2016시즌 이후 3년 만이자 통산 2번째 하위그룹 추락의 수모다. 이는 우승은

물론이고 3위까지 주어지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출전권도 물 건너갔다는 의미다.

이제 남은 건 2019 KEB하나은행 FA컵뿐이다. FA컵 우승팀은 ACL 출전권을 갖는다.

FA컵 4강전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수원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상주 상무(K리그1)와 대전 코레일(내셔널리그), 그리고 화성FC(K3리그 어드밴스) 등과 함께 준결승에 오른 수원의 전력이가 가장 앞선다는 평가였다. 또 수원 이외엔 우승을 하더라도 ACL 출전 자격이 없어 동기부여 면에서도 수원이 월등했다. 포항과 함께 역대 4차례 우승을 거둔 수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최다 우승팀을 노렸다.

하지만 FA컵도 시원찮다. 지난달 18일 화성FC와 1차전 원정경기에서 0-1로 졌다. 외국인 선수들을 총동원하고도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결승골의 주인공이 지난해 수원에서 계약 해지된 문준호여서 더욱 쓰라렸다.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이임생 감독이 직접 나서 사과했다. 심지어 FA컵에서 실패할 경우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해 분위기는 공포 열어 불었다.

수원은 배수의 진을 쳤다. 2일 오후 7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차전 승리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원정 다득점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원은 반드시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결승에 오른다. K3리그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른 화성의 기세가 만만치

않지만 수원은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이임생 감독은 K리그1 32라운드 전북 현대와 원정경기에서 주전 대부분을 쉬게 했다.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가능한 것이다. K리그에 이어 FA컵마저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수원 구단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수중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도 “우리 선수들은 이 경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신 무장을 단단히 했다”며 결전을 앞둔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또 다른 4강 2차전인 상주와 코레일의 경기는 2일 오후 7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두 팀은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 이랜드 전석훈 천금골...탈꼴찌 기회는 날려

총력전 나섰지만 아산 무궁화와 1-1  
4033명 운집, K리그2 평일 최다관중

서울 이랜드가 절호의 탈꼴찌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서울 이랜드는 1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31라운드 아산 무궁화와 홈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이기면 9위(승점 24) 대전 시티즌을 최하위로 끌어내릴 수 있었지만, 승점 23으로 올라서 대전과 격차를 줄였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분위기가 반전이 필요한 서울 이랜드였다.

8월 신바람을 냈던 4연승 이후 계속해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최근 6경기 성적은 2무4패. 우승용 감독대행이 “오늘은 최하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산의 젊은 선수들이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

지만 우리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며 10월의 첫 날 총력전을 다짐한 이유였다.

다만 서울 이랜드의 기대와 달리 선제골은 아산의 몫이었다. 전반 9분 민준영의 완벽한 왼발슛이 골망을 갈랐다. 양태영의 프리킥이 이재건의 몸을 맞고 나갔고, 민준영이 이를 놓치지 않고 왼쪽 발등으로 정확히 때렸다. 베테랑 골키퍼 김영광조차 손을 쓰지 못한 강력한 대포였다.

전열을 가다듬은 서울 이랜드는 곧바로 응수했다. 전반 16분 전석훈이 프로 데뷔골을 터뜨렸다. 두아르테의 침투 패스를 받아낸 뒤 침착하게 오른발로 찰러 넣어 동점골 만들었다.

공세는 계속됐다. 전반 41분, 전석훈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파울을 얻어냈다. 주심은 즉시 휘슬을 불었다. 그러나 아산 수문장 이기현이 김민균의 페널티



K리그2 서울 이랜드 두아르테(왼쪽)이 1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산무궁화와 홈 경기에서 상대 남희철과 볼을 다투고 있다. 양팀은 1-1로 비겼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킥을 막아내면서 역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1-1로 전반을 마친 서울 이랜드와 아산은 후반 다양한 교체카드를 활용하면서 반전을 꾀했다. 서울 이랜드는 원기종과 이태훈, 김경준을 차례로 투입했고, 아산은 장신 공격수 오세훈을 넣어 공중전 우위를 노렸다. 그러나 김영광과 이기현의 선방이 계속되면서 양쪽의 골문을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후반 43분 아산 박민서의 슛은 김영광이 막아냈고, 종료 직전 문전 오른쪽에서 시도한 서울 이랜드 원기종의 중거리포는 이기현에게 막혔다. 결국 서울 이랜드와 아산은 1-1로 비긴 채 경기를 마쳤다. 이날 천안종합운동장에는 4033명이 모여들어 K리그2 역대 평일 최다관중 신기록을 새로 썼다.

천안 | 곽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7일간의 ‘스포츠 축제’ 서울 달군다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D-2

33년만의 서울대회...4일 잠실 개막  
47개 종목·선수 3만여명 출전 자웅

대한민국의 체육 역사를 이끌어온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

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대회로 자리매김한 전국체전은 1920년 서울 배재고보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00회째를 맞아 그만큼 의미가 크다. 1951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대회가 열렸고, 서울 개최는 1986년 이후 33년 만이다.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는 잠실주경기장을 비롯한 서울지역과 타시·도 72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시범경기 2종목 포함)에 걸쳐 진행되며,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핸드볼과 체조, 하키 등 일부 종목의 일반부 경기는 2020도쿄올림픽 예선 등의 일정을 고려해 지난 달 사전 경기로 이미 치러진 바 있다.

잠실주경기장에서 펼쳐질 개회식은 4일 오후 4시50분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3시간 동안 ‘꿈의 신화, 백년의 탄생’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전문 예술인과 시민, 발달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총 2229명의 출연진이 메인 공연에 투입되며, 여흥철(체조)과 임오경(핸드볼)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스포츠합창단’이 애국

가를 부른다. 선수들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도쿄올림픽 효자종목으로 손꼽히는 펜싱의 박상영과 남현희, 오상욱, 사격 진종오, 유도 광동한, 태권도 이태훈, 양궁 김우진 등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역대 최다 5회 전국체전 MVP를 수상한 수영 박태환(2005·2007·2008·2013·2017년)의 퍼포먼스는 특히 관심을 끈다.

이번 대회의 마스코트 ‘해피’는 서울의 상징인 ‘해치’와 친구의 순우리말 ‘아피’를 붙여 만든 이름이다. 4일부터 19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운영되는 체협관 내 홍보부스에서 마스코트와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